전북교육청, 생명나눔 · 이웃사랑 실천

오늘 사랑의 헌혈운동 펼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전 직원 중 희망자 대상

전북도교육청이 생명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운동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북문 출입구 앞 헌혈 차량에서 이뤄지며 도교육청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여름철에는 국내 전체 헌혈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가 헌혈 참여가 줄고 이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헌혈 운동을 펼치게 됐다"며 "공직자로서 생명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자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혈한 혈액은 간기능검사 등 6종 이상의 혈액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헌혈 참여자들이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4시간의 봉사활동 실적도 인정받는다.

전북혈액원은 "헌혈은 우리 몸이 여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혈액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특히 헌혈 후 조혈작용이 활발해지며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사례도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워킹맘' 자녀 학교활동 참여보장 방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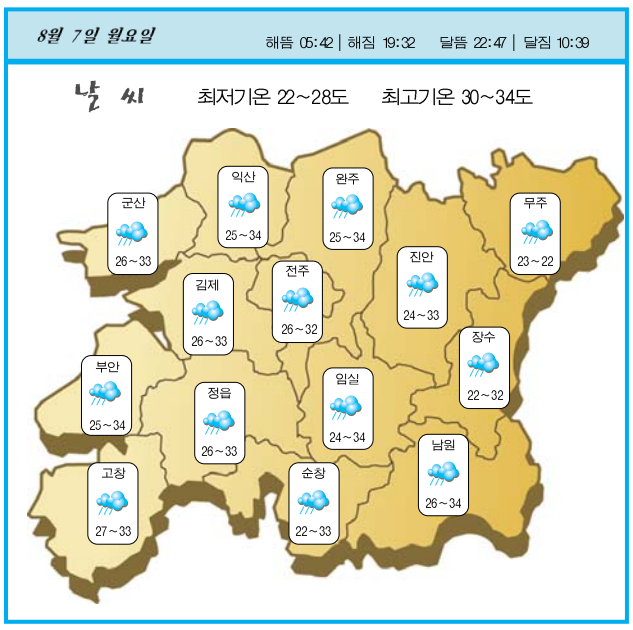
앞으로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이 학부모회의·학교운영위원회 등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육 및 운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법률로 규정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를 보장하면 학업성적 향상과 문제행동 개선, 가정교육 강화 등으로 이어져 학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폭염속에 피어난 해바라기 입추(立秋)절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일 오전 어느 들녘에는 해바라기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특수교육 학습보조 공학기기 3억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3억원을 들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4일 전북도교육청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전북맹아학교 등 10개 특수학교에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3억900만원, 일반학교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6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전북맹아학교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해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광학문자판독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시각장애 학생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또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전주선화학교에 1,800만원을 지원해 FM 송수신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노후된 교수학습용 공학기기를 교체한다. 이와함께 지체장애 특수학교인 동암차돌학교와 전북푸른학교에 7,400만원을 지원해 터치키보드, 맞춤형 책걸상 등 노후된 보조공학기기를 교체한다.

지적 정서장애 특수학교인 전주유화학교, 전주은화학교, 군산명화학교, 다솜학교, 한울학교, 전북혜화학교 6개교에 8,200만원을 들여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노후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를 교체한다.

/정해은기자

경기전 입장권 · 안내 홍보물 전주완판본체로 발행

전주시, '전주완판본체' 알리기 나서

전주시가 역사와 뿌리, 정신을 담고 있는 독보적인 서체인 '전주완판본체' 알리기에 나섰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족보 있는 서체'로 개발·보급된 전주완판본체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전 입장권과 경기전 안내 홍보물을 전주완판본체로 발행한다.

전주완판본체는 과거 목판 글꼴이 가진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구현한 서체이자 '전주완판본'이라는 뚜렷한 뿌리를 가진 서체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도시이자 조선후기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출판문화 거점도시라는 전주의 역사성이 담겨있다.

1410년(태종 10) 건립된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어진을 봉안한 곳으로 어진을 모신 정전, 전주이씨의 시조 이한과 시조비인 경주김씨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 예종대왕의 태를 묻은 예종대왕 태실비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전주사고 등이 있다.

경기전은 조선왕조의 정신적 뿌리인 만큼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들러야할 주요 코스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주시는 경기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전주완판본체를 알리기 위해 입장권과 홍보물을 전주완판본체로 제작했다.

특히, 향후 문화재 안내판을 신규제작하거나 정비할 경우에도 전주완판본체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6일과 9월 16일에 각각 진행되는 전주문화재 야행의 종합 안내부스와 한지등 체험부스 등에도 경기전 홍보물을 활용해 전주완판본체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간 120만명이 방문하는 경기전의 전체 방문객 중 95%가 타지역민인 만큼, 전주완판본체를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전주완판본체가 전주의 역사성과 정신적 뿌리를 담은 국내 유일의 서체임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초등학생 대상 '하계 한자문화캠프' 성료

전주시가 한자문화캠프를 통해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나섰다.

시는 4일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문화연수원 등 한옥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하계 한자문화캠프'를 모두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 1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캠프는 전주시와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이 전주향교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협조로 한지, 비빔밥, 전통타악기, 천연염색, 부채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은 물론, 붓글씨 및 사자소학 등 서당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이번 캠프에서 미술과 음악이 결합된 융복합 인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옛 미술가인 단원과 혜원 선생의 작품을 이야기 하고 그의 느낌을 음악적으로 나눠보는 '홍도와 윤복이랑 떠나는 예술 인문학'이 그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가족마저도 각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전통문화를 매개로 한 교육과 체험, 소통을 통해 해결해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캠프를 꾸준히 운영할 계획이다.

/안재용기자